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3. 28.(금) 11:00 < 3.29.(토) 조간 > 배포 2025. 3. 28.(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신통상질서 재편에 적극대응”

- 산업부, 신통상 현안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통상현안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28(금) 통상 관련 유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최근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확대, 과잉공급 등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유관·연구기관 전문가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학계 전문가들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 ▲EU 통상정책 변화 방향 및 대응방안,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방향 등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주도 성장정책이 경기하강기에 과잉공급을 근거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구실과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최근의 관세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기 보다는 결국 물가상승,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트라는 최근 발표된 ‘EU 옴니버스 패키지*' 등을 포함한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 (주요내용) 지속가능성보고지침, 공급망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등 기업 부담완화 및 투자촉진 정책 포함('25.2.26(수))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경제안보, AI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EU 등의 통상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장별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통상 유관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21년부터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 이슈를 주제로 14차례 개최된 「신통상라운드테이블」을 '25년도에도 이어 나감으로써, 전문가 및 업계와 소통하고, 통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	책임자	과 장	윤선영 (044-203-4870)
		담당자	사무관	손은삼 (044-203-487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신통상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 **회의목적**

○ 최근 과잉공급 등과 관련한 신통상 현안 및 '25년 신통상라운드테이블 운영방향 등에 대해 통상 유관기관 등 전문가들과 논의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5.3.28.(금) 14:00~15:30, 달개비(서울 중구)

○ **(참석자)** 산업부, 유관기관·연구기관 등 전문가

-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주재), 신통상전략과장 등
- **(유관기관)**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 **(학계)** 김두식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주형 교수(서울시립대)

□ **세부일정(안)**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 모두발언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14:05~14:55	50′	○ 안건 발제 ❶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 ❷ EU 통상정책 변화 방향 및 대응방안 ❸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연구원
14:55~15:25	30′	○ 안건 논의 - 검토의견 및 대응방안 - 종합토의	참석자
15:25~15:30	5′	○ 마무리발언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